

삼성 스마트공장 참여 中企, 대출이자·보증료 확 줄인다

중기중앙회·삼성·우리銀·기보 협약
스마트공장 참여中企 금융지원 확대
우리銀 20억 특별출연, 판로지원
기보 1100억 보증·융자 지원나서
보증료율 1.3%p, 대출이자 2.2%p↓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참여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빌린 운전자금 등 대출이자와 보증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삼성전자,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중기중앙회가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료 및 대출이자 인하 등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이고 대·중소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삼성·포스코가 추진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 중소기업 246개사를 대상으

로 만족도를 조사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0.3%가 '만족(매우 만족 포함)'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은 0.4%에 그쳤다. 구축 솔루션에 대해서도 82.1%가 '만족'을 표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업 규모가 커 운전·시설자금 대출이 많은 경우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보증료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 단계에 대해 지원받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7억원 정도를 대출받은터라 매년 1000만원 이상의 보증료가 발생해 보증료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기보로부터 특허 보증 한도도 최대까지 받은 상태여서 추가 보증한도까지 주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20억원을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기보는 1100억원의 보증료와 융자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 시 기보의 보증료율을 1.3%p(우리은행 1.0%p, 기보 0.3%p)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 2.2%p 인하 혜택도 받는다.

시설자금을 5억원 대출받았다면 2년간 보증료와 이자 인하 혜택을 포함해 기업은 총 3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보증료 및 융자 지원 외에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 등 판로 지원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기보는 기술보증서 발급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담보력을 강화한다.

또 중기중앙회와 삼성전자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운영을 통

해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 단계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을 지속하고,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 내용 홍보 및 대상기업 확인 등을 통해 협력한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자금의 소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협약 또는 다른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금융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의 새로운 상생금융 모델"이라면서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 4개 기업과 기관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판로 개척·마케팅에 142억 투입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AI 마케팅 등 2050개사 맞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올해 141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하고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실시하는 지원사업에선 ▲온라인 판로지원(300개사) ▲오프라인 판로지원(300개사)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운영(1200개사)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250개사)을 중심으로 총 2050개사를 1년간 돕는다.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전문 상품기획자(MD)가 중소기업의 주요 e커머스 플랫폼 및 홈쇼핑 입점을 돕는다. 대형 유통망을 통한 기획전, 팝업 스토어 개최는 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뒷받침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업박람회와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열고 바이어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백화점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전용 제품 판매장 설치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유통망 대비 절반 이상의 낮은 판매 수수료율과 전담 판매 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인천공항에 있는 정책면세점은

화장품, 패션, 라이프, 푸드를 중심으로 한 '4대 K-수출전략품목' 중심의 테스트 베드로 개편한다.

올해 새로 도입하는 마케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전략 수립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핵심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참여 기업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KCC실리콘, 뷰티 소재로 글로벌 시장 도전

인도 뭄바이서 'HPCI India' 참가

KCC실리콘이 뷰티 소재 경쟁력을 글로벌 기업들에게 알리며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KCC실리콘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인도 뭄바이 지오 월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HPCI India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실리콘 기반 뷰티 소재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HPCI India'는 인도 및 글로벌 뷰티·생활용품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 혁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 전시회로, 매년 2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가한다.

KCC실리콘은 전시회를 통해 감각적인 사용감과 기능성을 동시에 구현한 스펀지(특히 기능을 갖춘 고부가가치 소재) 실리콘 라인업을 선보이고, 제형 완성도와 차별화된 사용 경험을 제안함으로써 KCC실리콘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글로벌 고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인도는 거대 인구를 기반으로 SNS사



KCC실리콘(KCC 뷰티)이 지난해 HPCI India 전시회에 참가해 마련한 부스 전경.

용자 확산, 젊은 소비자 층 확대 등 뷰티·퍼스널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KCC실리콘은 인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KCC실리콘 관계자는 "이번 HPCI India 2026은 단순한 제품 홍보의 장이 아닌 글로벌 뷰티 시장과 KCC실리콘의 기술 철학을 직접 연결하는 무대"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현대제철

CDP 평가 '리더십 A-'

국내 철강사 중 유일 최고등급

현대제철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국내 철강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국내 철강사 중 유일하게 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

CDP는 글로벌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환경경영 정보를 분석하는 국제 비영리기구로, 매년 기후변화 대응·수자원 관리 분야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현대제철이 받은 '리더십 A-'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와 실행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현대제철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분석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향됐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com

소진공, '립스 프로그램' 민간운영사 모집

유망 소상공인 발굴·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공)이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립스(LIPS)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운영사를 오는 2월6일까지 모집한다.

26일 소진공에 따르면 '립스(LIPS) 프로그램'은 유망 소상공인에게 신제품 개발 및 사업 고도화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육성사업으로, 민간투자연계형 매칭투자자(LIPS I)와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LIPS II)으로 나뉜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자가 먼저 투자할 경우 립스 I은 투자금의 최대 5배(5억원 한도)까지 정책자금을, 립스 II는 투자금의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자금을 각각 매칭 지원한다.

민간 운영사 모집 대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재원 및 투자 실적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전문기관으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기술

지주사 등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민간 운영사는 ▲유망 소상공인 발굴·추진 ▲소상공인 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소상공인 성과관리·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립스 프로그램 민간운영사 모집 관련 세부 신청 요건,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누리집과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립스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이 단순 생계형을 넘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진공은 립스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포티투닷, 자율주행 '아트리아 AI' 고도화

경력 개발자 50여명 채용

현대차그룹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자율주행 기술 '아트리아 AI'를 고도화하기 위해 경력 개발자 50여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채용 직무는 10여개 분야로 머신러닝(ML) 플랫폼, 인공지능(AI), 퍼지컬 AI, 시각·언어·행동(VLA), 보안 등 자율주행 기술 전반에 걸쳐있다. 최소 3년부터 최대 20년의 전문 경력을 보유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연구를 넘어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어 석·박사 과정 연구원 경력의 입사자들은 연구 실증과 커리어 확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포티투닷은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

밸리에 자율주행 개발 인프라와 연구개발 차량을 갖추고 실제 도로 환경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포티투닷에는 총 800여명의 임직원이 한국, 미국, 폴란드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중 70%가량이 개발 직군이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티투닷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포티투닷이 새 리더십 체제에서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엔비디아, 테슬라 출신의 자율주행 기술 전문가인 박민우 박사를 포티투닷 신입 대표로 선임했다.

/양성운 기자 ysw@